

중국의 문화대국 전략*

- 그 내용과 한국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이옥연**

1. 서론 - '문화대국'의 부상
2. 문화대국 전략의 대두 배경
3. 중국 문화대국 전략의 실천 내용
4. 중국 문화대국 전략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
5. 맺음말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국 국가 발전 전략 중의 하나인 문화대국 건설 전략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대국을 건설하려는 발전 전략이 중국의 신안보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문화산업 발전과 전통문화를 부활이 문화대국 건설 전략의 핵심 내용이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문화발전 전략이 한국 문화산업 수출에 위기와 기회 요소를 동시에 지니며, 한중 사이에 문화적, 역사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소프트 파워, 문화대국 중국, 중국의 부상, 중국문화정책

* 이 연구는 2008년 동북아 역사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서강대 중국문화전공, 부교수

1. 서론 - '문화대국'의 부상

중국이 100년 동안 고대해 온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뒤 중국의 향후 행보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은 향후 중국이 대국으로 나아가는 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한 가운데, 중국이 군사대국, 경제대국에 이어 문화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러한 전망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올림픽 개막식의 문화 공연이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은 중국 고대의 4대 발명품과 유가 문화를 축으로 삼아 중국의 문화와 중국의 정신을 세계인들에게 유감 없이 보여주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이 문화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¹⁾

이처럼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공연은 중국이 세계인들에게 보내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는 중국이 찬란한 문화전통과 인문전통을 지닌 나라라는 점을 세계에 전달하려고 했고, 다른 하나는 세계가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 문화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면서, 정치나 군사가 아니라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달하려고 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 세계에 새로운 중국 이미지를 선보였다. 사회주의 문화가 아니라 전통문화를 앞세웠고, 무(武)와 남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문(文)과 여성 이미지를 첨단 과학기술에 담아 새로운 중국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준 것

1)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기철, 「광명과 윤디리」, 『조선일보』 2008년 9월 19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8/2008091801705.html [2008년 11월 4일], 홍청보, 「베이징 올림픽의 유산」, 『한겨레』 2008년 9월 10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09442.html> [2008년 11월 4일].

이다. 중국이 보유한 소프트 파워 자원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앞세워 세계를 흡인하고 세계와 소통하려는 전략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나름대로 성공은 거두었지만, 역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세계적으로 군사대국 위협론, 경제대국 위협론에 이어 문화대국 위협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의 중국 의도가 충분히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저명한 중국 외교전문가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문화를 수단으로 삼아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켜보겠다는 애초의 목표는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도²⁾ 이러한 사정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한 이후부터 줄곧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이자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왔다는 점에서 보자면,³⁾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이 세계에게 보여준 문화 중국의 이미지는 개막식 연출을 맡은 장이모(張藝謀) 한 사람의 독창적 구상으로만 연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문화 중국 이미지 만들기 전략과 문화 소프트 파워 강화라는 중국의 국가 전략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문화공연은 세계인들에게 과거 찬란했던 문화중국, 문화대국의 모습을 회상시켜 주는 자리가 되었고, 세계인들은 그러한 문화중국, 문화대국이 21세기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
- 2) 베이징 올림픽의 성과를 결산하는 한 좌담에서 중국 외교 전문가인 關學通이 한 발언이다. 王逸舟, 金煥榮, 關學通 등의 좌담, 「奧運之後中國地位變沒變」, 『世界知識』 2008年 18期, 15-16면 참조.
- 3) 龐中英, 「奧運會: 增強國家軟力量, 超越民族主義和弘揚人類精神」, 『外交評論』 2006年 第5期, 9-10면 참조.

그렇다면 중국은 왜 최근 들어 문화대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어떤 문화정책을 동원하고 있고, 중국의 이러한 문화대국 건설 전략은 한국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화대국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부상할 때, 이것이 한국에게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문화정책에 대응하여 어떤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내용을 가지고 진행된다. 그동안 중국이 문화대국이 될 것이라는 진단과 예측은 주로 한국 언론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 많이 다룬 것처럼,⁴⁾ 문화대국이 되려는 중국의 국가 전략이 또 다른 패권주의 움직임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거나 중국이 문화대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 보다는 왜 중국이 문화대국이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문화대국이 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문화대국 건설 전략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는 한편 한국이 향후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화정책 수립하여 여기에 대응할지에 대한 나름의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대국 전략은 주로 국내 문화정책이지만 그 영향이 중국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문화산업 육성책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 문화정책이지만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에 문화를 수출해 온 나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통문화 부활 정책은 전통문화를 해외에 수출하려는 전략을

4) 오광진, 「문화패권주의의 고개-반한류 노골화」, 『한국비즈니스』, 2007년 9월 10일(제 614호)(검색:2008년 10월 2일) 및 홍인표, 「베이징 올림픽, 중 슈퍼 파워 도약 야심」, 『경향신문』 2008년 8월 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071816295&code=980901(검색:2008년 11월 4일)

담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문화대국 건설 전략은 특히 한국에게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전통문화 부활 정책은 중국과 유가문화 등을 공동의 전통문화 자산으로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세계 문화계에서 문화적 경쟁을 촉발할 수 있고, 중국이 문화대국 전략을 추진하면서 문화산업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는 우리 문화상품이 중국에 진출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상품 시장에서 향후 중국이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중국 문화산업이 성장하면서 한국 문화산업이 중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회의 차원이든 위기의 차원이든 중국이 문화강국, 문화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화 대국 전략에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진행된다.

2. 문화대국 전략의 대두 배경

중국에서 ‘대국’ 관련 논의가 나온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대국’ 관련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과거에는 ‘대국’ 관련 논의가 주로 군사와 경제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문화와 관련하여 대국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대국과 관련한 정책 제안과 지적 논의들이 90년대 말부터 서서히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2000년 이후, 특히 2002년과 2007년 중공 당 13차, 14차 당 대회,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화파워(文化力)’, ‘문화안보(文化安全)’,

‘소프트 파워(軟實力)’ ‘문화 소프트 파워(文化軟實力)’ 등의 개념이 중공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각종 연설과 정책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10월에 열린 중공당 16차 당 대회 보고에서는 ‘문화’라는 단어가 모두 84회나 등장하는, 역대 중공당 대회 정치 보고에서 찾아 볼 수 없던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⁵⁾

중국 공산당과 정부,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 각별해졌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공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은 2007년 10월에 열린 중공당 17차 당 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문화 건설의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며 전민족 문화의 창조적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나라의 문화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켜야 한다”⁶⁾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17차 당 대회에서는 예전 당 대회에 비해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문화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문화 소프트 파워’나 ‘문화 창조 활력’이니 하는 새로운 명사들이 빈번히 출현하기도 했다.”⁷⁾ 특히 올림픽 개최 직전인 2007년의 경우, “2007년은 중국 소프트 파워 건설의 전환점이 된 해”⁸⁾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문화와 소프트 파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문화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이 진행하는 집단 학습의 ‘단골손님’이 되었다.⁹⁾

그런데 중국은 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예전과 달리 이렇게 문화와 소프트 파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의 해명이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와 중국 공

5) 村田忠禧, 「改革開放以來的黨大會政治報告的詞語變化來看中共十六大的特點」, 『中共黨史研究』 2003年 第1期.

6) 胡錦濤,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為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 『人民日報』 2007年 10月 22日 第1版.

7) 封肖平, 「文化軟實力:大國競爭的新領域」, 『上饒日報』 2007年 11月 30日 第2版.

8) 俞新天, 「2007:軟實力建設的指標年」, 『外交評論』 2007年, 第6期, 9면.

9) 趙磊, 「當前提升我國文化軟實力面臨的機遇和挑戰」, 『新遠見』 2008年 5期, 58면.

산당이 과거처럼 문화를 오직 선전과 사상교육의 수단으로 간주하던 데서 벗어나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두 가지 차원에서 재발견, 혹은 새롭게 인식한 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첫째는 문화를 국가안보의 중요 요소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문화를 소프트 파워 차원에서 중요한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 국가안보 요소로서 문화의 재발견

먼저, 국가안보의 중요 요소로서 문화에 대한 재발견, 혹은 새로운 인식은 중국의 '신안보관'(新安全觀)의 대두와 연관을 지니고 있다. 신안보관은 1993년 2월 카트만두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안보와 국가 간 신뢰에 관한 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처음 대외적으로 거론한 이후 1996년에 정식으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2001년 7월 1일 장쩌민(江澤民)의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대회 연설과 2002년 9월 13일 탕자쉬엔(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의 유엔연설, 그리고 2002년 10월 중공당 16차 당 대회와 2002년 12월에 발표된 국방백서 등에서 그 기본 방침과 내용이 거듭 천명된 바 있다.¹⁰⁾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된 중국의 신안보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이라는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10) '신안보관'이 탄생하고 중공당과 중국 정부 지도자들이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했다. 한석희, 「중국의 신안보개념-다자간 안보에 대한 중국의 협력 가능성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2004, 제8권 제1호, 221-244면, 李小華, 「中國安全觀分析(1982-2007)」, 上海人民出版社, 2008, 136-170면과 李敏倫, 「中國新安保與上海合作組織研究」, 人民出版社, 2007, 26-24면. 關學通, 「對中國安全環境的分析與思考」, 『世界經濟與政治』, 2000年 第2期, 5-10면.

데,¹¹⁾ 이는 중국이 국가 안보를 고려할 때 종래와 같은 힘의 우위와 군사동맹, 체제와 이데올로기적 입장보다는 공통된 안보이익과 상호신뢰, 상호이익에 기초한 평화와 경제적 협력, 그리고 공동발전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¹²⁾

이러한 신안보관이 국제정치와 외교에서 갖는 의미는 별도로 논의될 바이지만,¹³⁾ 이 연구에서 다루는 문화대국 전략과 관련하여 보자면, 중국의 이러한 신안보관 채택이 갖는 의미는 신안보관이 기존 국가안보 개념에 비해 국가안보 개념을 확장하는 가운데,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점이다. 신안보관은 90년대 후반 들어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중국이 외국의 군사 침략을 당할 가능성을 줄어든데 비해,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더욱 심각해졌고, 향후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전통적 군사 위협에 비해 훨씬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¹⁴⁾ 이에 따라 군사안보 중심의 전통적 안보 개념을 확장하여 “경제안보, 정치안보, 생태안보, 문화안보 등과 같은 비군사적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¹⁵⁾하는 종합안보관(綜合安全觀)을 채택하게 된다.

중국에서 문화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문화대국 전략이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중공당과 중국 정부가 이처럼 신안보관을 채택하고 이와 더불어 종합국력(綜合國力), 종합안보에

11) 김재관,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2003, Vol 19, No.1, 8면.

12) 이계희, 「중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정책」, 『통일문제연구』 2002, 4권 1호(통권 제37호), 38면.

13) 이에 대해서는 위의 한석희(2004), 김재관(2003), 이계희(2002) 등의 연구 참조.

14) 중국 정부가 이렇게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정리한 것은 주로 신안보관의 정책 수립에 직접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閻學通의 입장에 의거했다. 閻學通, 「對中國安全環境的分析與思考」, 『世界經濟與政治』 2000年 第2期 7면 참조.

15) 위와 같음.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¹⁶⁾ 신안보관과 종합안보 개념을 채택하면서 문화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가안보의 중요 요소의 하나로서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중공당이 종합국력과 종합안보 등 신안보관을 기초로 하여 문화안보의 개념을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1999년 2월 26일 전국 대외선전 사업 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서 당시 중공당 서기 겸 국가 주석이었던 장쩌민은 비군사적, 비전통적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안보, 경제안보, 문화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¹⁷⁾ 그 후, 문화안보란 개념은 중공당과 중국 지도자들의 주요 회의와 주요 연설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예컨대 후진타오는 2003년 8월 12일 중공 중앙 정치국 제4차 집단 학습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가의 문화안보와 사회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2004년 9월에 열린 중공당 16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전통적 안보 위협과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상호 교차되는 새로운 상황에서 국가안보 의식을 높이고 국가 안보 전략을 완비해야 한다.(…) 각종 적대적 세력의 침투와 전복, 분열 활동에 타격을 가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치안보, 경제안보, 문화안보, 정보안보를 확보하여야 한다”¹⁸⁾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중국공당과 중국 정부가 이처럼 문화안보를 강조하면서 국가안보의 수단으로서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언급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뒤집어 보자면 신안보관이

16) 물론 중국 정부가 비전통적 안보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경제안보이다. 비전통적 안보 요소 가운데 과거에는 주로 경제안보만 강조했지만, 최근 들어 경제안보와 더불어 문화안보를 강조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인 것이다.

17) 林利民, 「對21世紀初中國國家安全戰略的己點思考」, 『江南社會學院學報』2002年 第4卷 第2期.

18) 중공당 관련 문서의 경우, <http://cpc.people.com.cn/GB/index.html> 참조(검색:2008년 5월 15일)

라는 새로운 안보정책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문화적 상황을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이 세계화에 동참한 이후 문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세계 각국이 중국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¹⁹⁾ “문화 패권주의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중국의 문화안보가 과거 보다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²⁰⁾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문화가 대량 유입되어 문화적 퇴폐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인들의 의식이 전면적으로 서구화되는 등, 중국문화의 ‘서화’(西化) ‘양화’(洋化) 현상으로 중국인들의 정신이 병들고 있으며, 그 부정적 영향이 중국의 문화안전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판단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²¹⁾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문화의 실제 상황이 정말로 외국문화 때문에 일종의 문화적 식민 상태에 빠져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문화안보론을 제기하는 중공당과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지식인 사회가 문화안보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위기의식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문화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2)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의 재인식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서 ‘소프트 파워 외교론’을 내세우고 있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²²⁾ 중국이 문화를 소프트 파워 자원(resources)

19) 楊義, 「綜合國力不能忽視文化競爭力」, 『文匯報』 2002年 11月 4日 第5版.

20) 彭新良, 「論中國的文化大國戰略選擇」, 『貴州社會科學』 2007年, 第3期, 30면.

21) 李金齊, 「全球化進展中我國文化安全的現狀與對策」, 『天府新論』 2005年 第1期 (總121期), 104면과 王岳川, 「大國文化安全與新世紀文化再中國化」, 『當代文壇』 2008年 第5期, 11면.

의 하나로 재인식하면서 중국의 장기 발전 정책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소프트 파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특히 후진타오 체제가 들어서고 이른바 ‘평화적 부상론’(和平崛起論)과 ‘베이징 컨센서스’(北京共識)가 나온 2003년, 2004년을 전후하여 활발해졌다.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소프트 파워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중국은 소프트 파워가 지극히 취약하다는 현실인식,²³⁾ 대국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여 문화적 흡인력이 1/10수준일 뿐이라는 현실인식은 소프트 파워 건설을 중국의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²⁴⁾

중국에서 그동안 나온 소프트 파워 관련 논의를 정리해 보면, 중국은 소프트 파워 건설이 대내적, 대외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필요성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대내적인 차원의 필요성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다: ① 개혁개방 과정에서 소련처럼 민족이 해체되는 부작용 방지 필요성 ② 민족 구성원들의 응집력과 사회적 단결 도모, 그리고 중국인들의 문화적, 도덕적 소양 고취 필요성 ③ 종합국력 증진의 필요성. 그런가하면 대외적인 차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냉전 해체 이후 군사적 안보 위험이 줄어들고 다변화된 국제질서와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한 외교, 안보

22) 중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 파워’의 개념과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는 거의 Joseph Nye의 이론에 의거하고 있다. Joseph Nye의 중국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는 ‘The Rise of China's soft power’, *Wall Street Journal(Asia)*, December 29, 2005. 참조. [http://belfercenter.ksg.harvard.edu/publication/1499/rise_of_chinas_soft_power.html?breadcrumb=%2F\(검색:2008년 9월 5일\)](http://belfercenter.ksg.harvard.edu/publication/1499/rise_of_chinas_soft_power.html?breadcrumb=%2F(검색:2008년 9월 5일)),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개념 논의 경과와 소프트 파워 외교 전략에 대한 핵심적인 정리로는, Young Nam Cho and Jong Ho Jeong(2008), "China's Soft power", *Asian Survey*, Vol. XLV III, No., 3, May/June 2008, pp.453-472 및 조영남, 「중국 외교의 새로운 시도: 소프트 파워 전략」, 김태호 외, 「중국 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나남, 2008. 참조.

23) 門洪華, 「中國軟實力評估報告(上)」, 『國際觀察』 2000年 第2期, 15면.

24) 閻學通, 徐進, 「中美軟實力比較」, 『現代國際關係』 2008年 第1期, 24-20면 참조.

전략적 요청 ②신안보관과 종합국력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관계를 맺을 필요성 ③중국이 세계의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있어서 ‘중국위협론’ ‘중국붕괴론’ 등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성.²⁵⁾

주지하듯, 소프트 파워론의 주창자인 조셉 나이(Joseph Nye)도 소프트 파워의 세 요소 중 하나로 문화를 들었듯이²⁶⁾ 중국에서도 국가 발전전략으로 소프트 파워론이 등장하면서 문화를 국가 소프트 파워의 토대이자 핵심으로 여기면서²⁷⁾ 문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발견하고 있다. 중국의 관련 논의를 종합해 보면,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합국력의 일부로서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하여 대국이 되는데 문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현시대에 문화가 종합국력 경쟁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문화 발전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것은 격렬한 국제경쟁에서 주도권을 효율적으로 장악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²⁸⁾

둘째,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25) 중국에서 소프트 파워란 개념이 도입된 경과와 논의, 소프트 파워 개념에 대한 이해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劉德斌, 「軟權力說的由來與發展」,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04年7月 第4期, 55-62면. Zhongying Pang, 'China's Soft Power'(Proceedings), The Brookings Institution, October 24, 2007, Young Nam Cho and Jong Ho Jeong(2008), "China's Soft power", Asian Survey, Vol.XLV III, No.,3, May/June 2008, pp.456-461.

26) Joseph S. Nye는 소프트 파워의 세 가지 요소로 문화(culture)와 가치(values), 대외정책(foreign policies)을 들고 있다. Joseph S. Nye, *Soft Power*, Public Affairs, 2004, p.11.

27) 門洪華는 소프트 파워의 핵심요소로, 문화와 관념, 발전모델 셋을 들고, 이 중에서 문화를 “국가 소프트 파워의 토대로서, 소프트 파워의 설득 작용과 침투능력, 흡인력은 주로 문화를 통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門洪華, 「中國軟實力評估報告(上)」, 『國際觀察』 2000年 第2期, 19면.

28) 李懷信, 「文化力在國家興衰和司誨發展中的地位和作用」, 巴忠俠 主編, 『文化建設與國家安全』 時事出版社, 2007. 51면.

개선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 문화계를 대표하는 작가인 왕멍(王蒙)이 “문화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이미지로 세계에 나갈 것인가의 문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그는 최근 1,2백년 동안 세계 속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가난하고 낙후되고, ‘동아시아의 병자’의 이미지였다면서, 이제는 문화 중국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문화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이상으로서 비단 문화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라고 강조하였다.²⁹⁾ 그런가하면, 베이징 대학의 왕위에추안(王岳川)은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나라는 절반도 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서구의 이러한 중국에 대한 상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문화대국 건설은 중국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³⁰⁾ 문화대국 건설을 역설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문화 중국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국 위협론과 같은 중국의 대국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국제적으로 친화력을 지닌 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³¹⁾

중국이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중국 전통문화와 중국 전통적 가치관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다. 공자와 유가문명,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화해를 강조하는 전통적 세계관, ‘화’(和)를 중요시하는 인간관계 등 중국 전통문화의 세계관이 현재 세계문명의 폐단을 치유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³²⁾ 왕위에추안(王岳川)은 이와 관련하여 지금의 인류문화를 반

29) 王蒙, 「全球化浪潮與文化大國建設」, 『光明日報』 2002年 1月 9日, 1면.

30) 王岳川, 「大國文化創新與國家文化安全」, 『社會科學前線』 2008年 2期, 216-217면.

31) 羅建波, 「軟實力與中國外交」, 『新遠見』 2008年 第5期, 43면.

32) 上海市鄧小平理論和三個代表重要思想研究中心, 「提高國家文化軟實力」, 『求是』 2008年 第6期, 15면.

드시 ‘재중국화’(再中國化)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적인 것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대 세계문화를 다시 중국화해야 하고 (去中國化以後再中國化)”, 근대성을 상징하는 현대문화, 특히 서구문화 위주로 구성된 일방적인 현대문화를 중국문화의 가치를 통해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³³⁾ 최근 들어 후진타오와 윈자바오(溫家寶) 등 중국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중국 전통 정신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화’(和, harmony)의 정신을 빈번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³⁴⁾

3. 중국 문화대국 전략의 실천 내용

1) 중국 전통문화의 재창조

중국공산당이 탄생(1921)한 이후, 그리고 중공당 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근처럼 중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중국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보다는 중국 전통문화의 봉건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비판해왔고, 그러한 경향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절정에 이르렀다. 그런데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공산당은 중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쏟으면서 전통문화의 수호자이자 계승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 후진타오가 “중국문화의 장점을

33) 王岳川, 「大國文化安全與新世紀文化再中國化」, 『當代文壇』 2008年 第5期, 8-10면 참조.

34) Zhongying Pang, 'China's Soft Power'(Proceeding), The Brookings Institution, October 24, 2207, 4면.

최대한 발굴하고, 조국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³⁵⁾고 강조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중공당과 중국 정부가 이처럼 중국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은 민족적, 국가적 통합 차원, 전통문화를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로 개발하는 차원, 민족문화 수호자와 계승자로서 새롭게 정체성을 모색하는 차원 등 여러 가지 배경이 결합되어 있지만,³⁶⁾ 문화대국 건설을 위해 소프트 파워 차원에서 중국 전통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것 역시 그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문홍화(門洪華)의 언급대로, “중국 소프트 파워에 관한 논의는 사실 중국 전통문화를 현대화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면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 전략과 국가의 기본 정책 차원으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³⁷⁾고 보는 것이 중국의 기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중국이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심혈을 쏟고 있는 분야는 공자와 유가사상의 복원이다. 후진타오 체제가 들어선 이후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이른바 공자의 ‘화’(和) 사상에 입각하여 ‘조화사회’(和諧社會) 이론을 내세우는가하면, 유교 경전 정리, 공자 탄생제의 복원, 중국 사회과학원의 유교연구센터 같은 국책 연구기관 설립 및 대학의 유교 연구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³⁹⁾ 또한 전통문

35) 胡錦濤, 「高舉中國社會主義偉大旗幟爲爭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在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2007年 10月 25日 第1版.

36) 이에 대해서는 이옥연, 「지구화 시대 중국의 문화발전 정책과 문화담론」, 『중국현대문학』 제37호(2006.6), 257-286면 참조.

37) 門洪華, 「中國軟實力評估報告」, 『國際觀察』2007年 第3期, 43면.

38) 물론 중국 전통문화를 중국 소프트 파워의 원천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견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통문화가 중국 소프트 파워의 자원이기는 하지만 한계도 지니고 있다는 입장(龐中英, 關學通)도 있고, 전통문화, 특히 기본적으로 ‘군자’(君子)의 문화인 유가 문화를 중국의 소프트 파워로 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單少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唐慧雲, 「國內學術界中國軟實力研究現狀述評」, 『國際關係學院學報』2008年 第3期, 18-23면 참조.

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2007년에는 매년 6월 두 번째 토요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고, 2008년에는 공휴일 규정을 개정하여 노동절 같은 사회주의 국가 기념일의 공휴일을 축소하고 추석과 청명절, 단오절을 법정 공휴일로 새로 지정하였다. 그런가하면 국민 도덕을 함양한다는 취지로 전통사상을 국민 교육 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화 민족의 전통 미덕과 시대 요구를 담은 도덕관을 융합하여 우리나라 국민 도덕 건설 발전의 주류로 삼아야 한다”면서 2002년 「국민 도덕 건설 실시요강」(公民道德建設實施綱要)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 이래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공자와 유가사상 부활 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간에서도 유교 부흥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중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1천만 명의 학생들이 사설 교육 기관에서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유가 사상을 경영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학자는 유교를 국가 종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⁰⁾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유교 부흥 정책이 민간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근대 이후 가장 열광적인 유교 부흥운동, 나아가 전통문화 부활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 중국의 전통적 사유방식과 전통 문화의 해외 수출

중국을 전통문화를 재창조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는 것과

39) 중국이 공자와 유가를 소프트 파워 문화콘텐츠로 재인식하고 활용하는 전반적 정책과 흐름을 정리한 국내 연구로는 채하연, 「중국의 소프트파워로서 공자콘텐츠의 전개현황 및 의의」, 『유교사상연구』 제33집(2008), 321-347면 참조.

40) Daniel Bell, *China's New Confucia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p.12-13.

동시에 중국 전통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중국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의 확대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전통문화 자원 가운데 주로 두 가지를 세계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의 전통적 사유 방식-중국인들이 중국 전통적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중국의 전통적 사유방식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과 집단과 개인 간의 관계, 민본사상, 효 사상 등이다. 이러한 중국 전통적 사유 방법이 서구문명의 폐단을 극복해줄 일종의 대안적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세계를 휩쓸듯이 중국 전통적 사유방식을 국제사회에 전시하여 중국적 가치관과 도덕 문화가 세계에 퍼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 전통적 사유방식의 해외 전파 과정에서 세계가 중국을 다시 발견하는 것의 세계사적 의미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⁴¹⁾

중국이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중국 전통문화는 무술, 한자, 중국어 등 총체적인 중국 문화 양식이다. 2004년부터 세계 각지에 설립 중인 공자아카데미(孔子學院)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는 공자아카데미는 2008년 1월 현재 64개국에 210개가 설립되어 있다. 이밖에 중국 중요 사상 저작 300권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작업과 중국문화 순례단을 구성하는 것, 중국 서예와 중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텔레비전 채널과 인터넷 방송국을 건립하

41) 베이징대학의 王岳川은 중국 전통적 사유 방식은 '화(和)'의 원리이지만, 서구의 사유방식은 '쟁(爭)'의 원리라고 규정하고, 개인과 개인, 단체, 국가 사이의 '화'를 특징으로 하는 '삼화문명'(三和文明)을 전파하여 서구의 '삼쟁문명'(三爭文明)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王岳川, 「大國文化創新與國家文化安全」, 『社會科學前線』 2008年 2期, 216-222면. 이와 유사한 주장에 대해서는 陳育欽, 「獨議國家文化軟實力」, 『重慶工業學院學報』(社會科學) 第22卷 第7期(2008年 7月), 115-117면, 上海市鄧小平理論和三個代表重要思想研究中心, 「提高國家文化軟實力」, 『求是雜誌』 2008年 第6期, 15면 참조.

는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전통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해외에서 각종 중국 전통문화 관련 문화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어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추석과 설 같은 전통명절에 해외 화교 단체와 연합하여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중국 문화제, 중국 영화제, 중국 전통문물 전시회 등을 적극 개최하여 세계가 중국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⁴²⁾

중국문화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는 논자들은 이렇게 세계무대에 중국문화를 전파할 경우, “문화의 정복은 인심(人心)의 정복이고, 인심의 정복이 진정한 의미의 정복이기에”,⁴³⁾ 중국문화가 세계인들에게 파고들어 세계인들이 중국과 중국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의 중요한 의미라고 보고 있다.⁴⁴⁾

3) 중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향상

문화대국을 추구하는 중국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낙후된 분야가 바로 중국의 문화산업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문화산업의 경쟁력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까지 뒤지는 현실은 문화안보나 종합국력, 그리고 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따른 국제사회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⁴⁵⁾ 중국은 문화 자원은 풍부하지만 문화산업의 경쟁력의 수준이 매우 낮은 문화 약소국(弱小國)이자 문화 수출 소국이고, 더

42) 中國國務院公報 2006-31, 「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 8章 참조.

43) 封育平, 「文化軟實力: 大國競爭的新領域」, 『上饒日報』 2007年 11月 30日 第2版.

44) 唐宋, 「向世界講述中國文化」, 『人民日報』 2005年 7月 15日 第4版.

45) 李金齊, 「全球化進展中我國文化安全的現狀與對策」, 『天府新論』 2005年 第1期 (總121期), 104면.

구나 문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역조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일반적인 현실 진단이다.⁴⁶⁾ 중공당 상무위원인 리창춘(李長春)이, “문화체제 개혁이 국가 전략적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절실하다”⁴⁷⁾고 언급한 것은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인식을 집약하고 있다.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준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중국 문화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문화체제 개혁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0년 10월 중공당 제15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공중앙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제 10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的建議)에서 ‘문화 산업’이라는 용어가 중공당과 중국 정부 중요 문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문화 체제를 개혁하는 데 진력하고 있는데, 2002년에 열린 중국 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공당과 중국정부의 문화 발전 전략이 한층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제출된 문화산업 발전 정책은 크게 두 차원인데, 하나는 문화를 국가 이데올로기를 관장하는 문화사업 부문과 문화산업 부문으로 나누어 문화산업 부문은 과감히 민영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 산업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업종과 지역, 국내외 업무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⁴⁸⁾

그런가하면, 문화체제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일부 문화산업 단위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개혁 작업을 벌여서, 9개 성, 35개 문화 단위를 시범적으로 개혁하였다. 이 개혁

46) 趙磊, 「當前提昇我國文化軟實力面臨的機遇和挑戰」, 『新遠見』 2008年 第5期, 57-62면 참조.

47) 李長春, 「全面落實科學發展觀, 深入推進文化體制改革」,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十六大以來重要文獻選編』(下): 中央文獻出版社, 2007, 376면.

48) 이러한 문화산업 개편 정책에 대해서는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6-01/12/content_4044535.htm(검색: 2008년 11월 5일) 참조.

조지로 2005년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5%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이처럼 1차 시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그 경험을 토대로 2006년에 1월에는 「문화 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的若干意見)을 발표하여 문화 체제 개혁 작업을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05년에는 11차 5개년 기간(2006-2010)의 문화발전 정책으로 「국가의 11차 5개년 시기 문화 발전 계획(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을 공표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전문 부서가 내놓은 문화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⁵⁰⁾으로서, 중국 정부가 문화대국 건설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계획에는 2010년까지 중국 문화 정책의 주요 목표로서 문화산업 발전이 설정되어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문화산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디지털영화 제작 기지를 건설하는가 하면, 중국 만화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등의 진흥책을 계획, 시행하고 있다.⁵¹⁾

4. 중국 문화대국 전략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

문화 파워를 키워 문화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문화발전전

4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중국문화콘텐츠산업개요」, http://www.kocca.kr/sub/contents/CMContent.srt?method=view&TYPE_ID=13&CONTENT_ID=48&MIG_INFO=KC(검색:2008년 11월 1일)

50) 李懷信, 姜亞東, 「文化力在國家興衰和社會發展中的地位和作用」, 巴忠俠 主編, 「文化建設與國家安全」時事出版社, 2007, 53면.

51) 中國國務院公報 2006-31, 「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 8章 참조.

략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어떠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먼저, 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이 문화안보를 중시하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한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문화안보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문화안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 문화의 중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문화정책의 핵심은 권기영 한국 문화 콘텐츠 진흥원 중국사무소 소장의 지적대로, 어떻게 국내 문화산업을 보호하면서 중국 문화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다.⁵²⁾ 요컨대, 중국 문화시장에 외국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일정 부분 차단하고, 그런 차단벽을 보호막으로 삼아 중국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정책 변화는 한류 수출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부에서는 그 영향이 이미 나타났다. 중국에서 한류는 2005년도에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 이후 침체상태에 빠져있다. 중국 내 전체 수입 드라마 중에서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31%였지만 2006년에는 27%, 2007년에는 16%로 그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푹 떨어졌다.⁵³⁾ 또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2008년 상반기 수출실적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동기 7.65%에서 2.2%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⁵⁴⁾

52) 권기영, 「세계 향해 칼끝 겨는 '민관연합' 전략적 화류」, 『신동아』 2008년 2월호(통권 581), 642면.

53) 박수균, 「CCTV와 손잡아야 지속적 한류 가능 : 방송진흥원 중국 대표방송 CCTV집중분석'보고서 발간」, 문화일보, 2008년 9월 3일.

54) 정진호, 「한류, 중 올림픽 이후 역풍 맞나?」, 『아이뉴스 24』 2008년 8월 25일,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100&g_serial=353065(검색: 2008년 10월 3일).

또한 2007년 중국 광전총국(廣電總局)이 수입 허가한 해외 드라마를 보면, 일본 드라마가 17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드라마는 13편으로 홍콩 드라마(16편) 보다도 적었으며, 대만 드라마와 같은 수준이었다.⁵⁵⁾ 중국에 한류를 수출하는 길이 갈수록 막히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반한(反韓) 내지는 혐한(嫌韓) 감정까지 일면서 중국에서 한류는 이제 유행이 끝나고, ‘한류’(寒流)가 되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⁵⁶⁾ 중국에서 한류가 식고, 특히 드라마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천편일률적인 내용이나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부족 등 한국 쪽에 그 원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⁵⁷⁾ 하지만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중국의 정책변화이다. 중국 정부가 2005년에 잇달아 「문화산업 수입 관리의 강화에 관한 조치(關於加強文化產品進口管理的辦法)」와 「문화영역의 외국 자본 도입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於文化領域引進外資的若干意見)」을 중국 각 부서에 내려 보내, 외국 영화를 연간 20편으로 제한하는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면서 인위적인 통제에 나서고, 해외드라마와 수입 애니메이션의 황금시간대 방영금지, 방송 및 도서 신문, 출판물 등에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의 중국 문화사업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영향 때문인 것이다.⁵⁸⁾ 원래 중국에서 한류는 일류(日流)와 달리 중국 관방의 정책적 배려 속에서 시작된 것

55) 윤상환, 「한국 드라마 중국서 시들」, 『매일경제』 2008년 7월 31일,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477712>(검색: 2008년 10월 25일)

56) 李拯宇, 「韓流’電視局’遭遇發展‘寒流」, 『經濟參考報』 2008년 4월 14일(第14版).

57) 김재하, 「겨울연가 이후의 빈곤」, 『조선일보』 2008년 10월 16일 및 가수 박진영의 입장. 「일방적 한류는 한계...시스템 수출해야」, 『연합뉴스』 2008년 9월 4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2251790>(검색: 2008년 10월 2일)

58) 중국의 이러한 외국 문화 유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中共中央宣傳部, 文化部, 國家廣電總局, 新聞出版總署, 商務部, 海關總署關於加強文化產品進口管理的辦法(中宣發 2005 15호) 참조.

이 아니라 중국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인데,⁵⁹⁾ 이제 중국 정부가 한류가 과도하게 유행하여 중국 문화가 침식당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한편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한류 수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 민간 부분에서도 한류 열기가 식으면서 중국에서 한류가 급격히 침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에서 문화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한중 사이에 문화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중국의 문화대국 건설전략의 핵심 중의 하나는 중국 전통문화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통명절의 부활, 학교 교육에서 고전교육 강화, 문화유산 보호 활동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중국은 근대 초기인 5.4시대(1915-1919) 이후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일종의 허무주의적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전통문화 부활과 재창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인들이 예전보다 훨씬 중국 전통문화에 높은 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 전통문화와 역사를 보여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공연을 두고 중화 민족의 중흥을 상징하고 중국의 역사적 성취를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중국 민족의 우수한 전통에 자부심을 느끼는 ‘부드러운 민족주의’ 정서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⁶⁰⁾도 이런 맥락에서다. 중국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화민족주의가 강화될 때, 고대사와 전통문화 유산을 둘러싸고 한중 사이에 문화적, 역사적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고구려사 문제나 단오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한중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듯이, 중국에서 문화민족주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중국인들이 동아시아가 공유해 온 역사

59) 張國濤, 「日,韓電視劇在中國的傳播及其審美文化思考」, <http://www.culstudies.com/rendanews/displaynews.asp?id=6781>(검색:2007년 12월 7일)

60) 王逸舟, 金燦榮, 閻學通 등의 좌담, 「奧運之後中國地位變沒變」, 『世界知識』 2008年 18期, 15,17면 참조.

와 전통문화 유산을 중국만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문화라고 배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중 사이에 역사 갈등, 문화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특히 민간차원에서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세계 문화계에서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사이에 동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 중국이 전통문화 유산과 중국의 전통적 사유방식, 그리고 중국어와 무술 등, 중국 전통문화를 해외로 수출하는 이른바 ‘내보기 프로젝트’(走出去工程)를 추진하면서, 세계 문화계에 ‘화류’(華流), ‘화조’(華潮)가 밀려들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 대학 왕이추안 교수의 지적대로, 동아시아 3국 가운데 1985년부터 1998년까지는 일본이 주로 세계에 동아시아 문화를 수출해왔고, 1998년부터는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였고 중국은 이 기간 동안 경제발전에만 치중하면서 이 방면에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국면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⁶¹⁾ 물론 중국문화가 세계문화계에 등장하면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동아시아에 대한 세계의 문화계의 관심이 거의 중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크다. 중국 문학과 그림, 영화 등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자아카데미는 2010년까지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세계인을 1억 명으로 늘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08년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어 강좌가 3천 개 대학에서 800여 개 코스가 개설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고등학교의 중국어 AP프로그램을 위해 7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⁶²⁾ 이러한 중국어의 공세는 단순히

61) 王岳川, 「大國文化創新與國家文化安全」, 『社會科學前線』 2008年 2期, 224면.

62) Sheng Ding and Robert A. Saunders, "Talking Up China: An Analysis of China's Rising Cultural Power and Global Promotion of the Chinese Language", *EAST*

언어차원을 넘어 중국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중국문화의 공세는 세계문화에서 중국문화와 구별되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중국이 문화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문화산업 시장이 빠르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이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한국 문화산업이 중국 문화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시장의 측면에서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할 때, 중국의 문화안보 차원의 시장 개방 제한을 효과적으로 피하면서 중국 문화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한국 문화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문화대국 정책은 한국에게 위기 요소와 기회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위기 요소를 줄이면서 기회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대책과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이 연구가 원래 의도한 대로 문화대국 중국의 부상에 따른 거시적 문화정책의 방향설정이라는 차원에 한정하여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화와 한국 문화상품을 수출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한류에 대한 민족주의적 접근을 버려야 한다. 한류에는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민족적 우수성이 담겨 있다고 여기면서 민족적 자긍심 차원에서 한류에 접근하면 할수록 중국은 한류를 문화안보를 위협하는 문화침투로 여기면서 수입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다. 한류에 대한 한국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한류를 동아시아류(東亞世亞流)로 승화시켜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와 정신적 자산으로 만드는 인식과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한류를

대하는 인식과 한류 수출 기업의 의식과 전략이 무엇보다 바뀌어야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한류 진흥정책 역시 바뀔 필요가 있다. 한국 문화 기업들이 외국과 공동의 제작하고, 기획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와 같은 인식의 연장으로, 기획과 투자, 제작, 판매, 콘텐츠 측면에까지 중국과 공동 작업을 하는 상생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중국 문화산업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콘텐츠까지 공동제작 비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문화시장을 포기하기 않고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다.⁶³⁾ 출판과 영화, 드라마 등 현재 중국 정부가 외국 문화의 유입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시도가 필요한데, 특히 드라마와 대중가요 등 대중문화 차원에서는 중국에 비해 선진화된 한국의 대중문화 기획 및 제작 시스템을 수출하여 여기에 중국의 콘텐츠를 채우는 시스템 수출의 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⁴⁾ 이는 중국 문화산업 시스템을 선진화하려는 중국의 관심에 부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셋째, 중국의 전통문화 자원(resource)을 우리 문화상품의 문화 콘텐츠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풍부한 문화 자원과 많은 문화 콘텐츠의 원형을 보유한 문화자원 대국이다. 중국 신화, 전설, 그리고 『삼국지』, 『서유기』 등 풍부한 문화 자원과 문화 원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문화 제품으로 만들어

6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방송 한류의 재도약을 위해 CCTV와 합작을 제안하고 있다. 「CCTV와 손잡아야 지속적 한류 가능: 방송진흥원 중국 대표방송 CCTV 집중분석·보고서 발간」, 『문화일보』 2008년 9월 3일.

64) 이와 관련하여, 가수이자 대중음악 기획자인 박진영은 한류가 이제는 시스템을 수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진영, 「일방적 한류는 한계... 시스템 수출해야」, 『연합뉴스』 2008년 9월 4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2251790> [2008년 10월 2일]

내지 못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약소국이다.⁶⁵⁾ 요컨대 문화 원형과 그것을 활용하여 문화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문화 제작 능력 사이에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 이런 중국과 비교하여 한국은 문화자원 약소국이지만 문화 제작 능력에서는 강점이 있다. 이런 한국의 강점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헐리우드에서 「쿵푸 팬더」와 「물란」이라는 중국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적극 참고할만하다. 중국 전통문화는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동아시아 공통의 전통문화라는 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이 좀 더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면 중국 전통문화 콘텐츠에 중국옷 혹은 동아시아의 옷을 입혀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파는 일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중국에서 문화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동아시아 전통문화 유산을 둘러싸고 한중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유산을 중국이 독점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오제나 한의학 등의 세계문화유산등재 과정에서 나타난 한중 민간 사회의 갈등에서 보듯이 동아시아가 전통적으로 공동으로 향유해 온 전통문화유산을 중국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역사적인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일이 빈번하게 빚어질 수 있다. 네티즌 등 중국 민간 차원에서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중국의 문화민족주의 공세에 우리 역시 문화민족주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책이 아니다. 그보다는 일단 단오와 같은 문화유산이 중국 문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탕위에서 그러한 문화유산이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역사

65) 溫朝霞, 「從文化資源大國到文化產業大國」, 「南方日報」2006年 5月 23日, 第A07版.

동안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향유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리와 대응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국가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대응이 될 것이다. 서구문화의 기원이 희랍문명에 있다고 하여 그리스가 서구문화에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진배없는 중국인들의 착오적인 사고방식, 한 중국학자가 중국인들의 ‘문화대국 소아병’이라고 비판한 이러한 사고방식⁶⁶⁾에 한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단오가 중국 시인 굴원(屈原)과 관련 있는 날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전통문화양식으로서 단오제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동아시아 단오제 행사를 연다든지, 삼족오(三足鳥)가 중국이나 한국, 일본 어느 한 나라만의 독점적인 문화자산이 아닌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자산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사를 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게 동아시아 감각을 불러일으켜 주는 나라가 되는 것이 중국의 혐애한 문화민족주의에 가장 유효하게 대응하는 길이고, 장기적으로 한국이 국가적 실익과 더불어 동아시아 평화허브로 발돋움 하는 길일 것이다.

다섯째, 세계문화계에 중국 전통문화의 대표적 아이콘을 앞세운 문화 공세가 강화된다고 할 때, 한국이 세계문화계에서 어떻게 중국과 차별되는 개성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전시할지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필요하다. 중국이 공자와 한자, 쿵푸, 경극 등 중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적극적으로 내보내면서 중국의 새로운 국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때에, 한국은 무엇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의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전통 문화를 일본과 중국이 대표할 가능성이, 특히 앞으로는 중국

66) 洪波, 「申遺之爭與文化大國幼稚症」, 『今日新息報』 2006年 10月 18日, 第6版.

이 대표할 가능성이 큰 마당에 중국과 많은 유사한 전통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전통문화를 가지고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전시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럴 때 현대 한국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 세계문화계에 중국이 부재하던 시절에는 한국 전통적인 것이 동아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전통문화가 세계를 향해 약진하는 상황에서는 세계문화계의 관점, 특히 서구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중국 전통문화와 차별성이 쉽게 감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고 할 때,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닌 한국의 이미지, 동아시아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는 차원의 한국의 이미지도 소중하지만 현대한국의 이미지를 선보이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문화를 세계에 전시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개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중국이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대국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제기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중국 경제나 정치, 외교의 추이와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와 정치, 외

교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지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중국의 문화정책의 추이와 변화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연구는 적었다는 점에서 보자면 이 연구는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최근 문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향후에 어떤 포괄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대국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제안이 주로 주관적인 거시적 문제제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연구의 특징이자, 특징으로 인한 한계이기도 하다. 향후 이 연구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분야별, 장르별로 세분화된 대응 전략들이 연구되고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 문화수출에서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는 한류 드라마와 영화의 경우, 중국이 외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콘텐츠 심사를 강화하고 최근 중국 대중들의 문화 취향이 복고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감안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새로운 한류 제작 시스템과 진출 모델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중국이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문화대국 건설에 나서면서 동아시아는 문화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 문화와 중국 문화산업은 향후 한국 문화와 한국 문화산업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문화대국 정책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서 있는 지금, 한국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한국의 학계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기본 취지가 여기에 있었다.

참고문헌

- 한석희, 「중국의 신안보개념-다자간 안보에 대한 중국의 협력 가능성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1호, 2004.
- 김재관,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Vol 19, No.1, 2003.
- 이계희, 「중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정책」, 『통일문제연구』 4권 1호(통권 제 37호), 2002.
- 조영남, 「중국 외교의 새로운 시도 : 소프트 파워 전략」, 김태호 외, 『중국 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나남, 2008.
- 채하연, 「중국의 소프트파워로서 공자콘텐츠의 전개현황 및 의의」, 『유교 사상연구』 제33집, 2008.
- 권기영, 「세계 향해 칼끝 겨는 ‘민관연합’ 전략적 화류」, 『신동아』 2008년 2월호(통권 581)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十六大以來重要文獻選編』(下), 中央文獻出版社, 2007.
- 趙有田 等 著, 『綜合國力競爭與文化衝突』 長春出版社, 2004.
- 李慎之, 「全球化與中國文化」, 『中國的道路』 南方日報出版社, 2000.
- 巴忠傑 主編, 『文化建設與國家安全』 時事出版社, 2007.
- 王佐書, 『中國文化戰略與安全研究』 人民出版社, 2007.
- 李敏倫, 『中國新安全觀與上海合作組織研究』 人民出版社, 2007.
- 曹峻 等著, 『全球化與中國國家安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 金炳鎬, 「文化地球化與民族國家」(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03年 6月.
- 王永強 編, 『邊唱邊走-中國文化年報(2002年版)』 蘭州:蘭州大學出版社, 2002.
- 林利民, 「對21世紀初中國國家安全戰略的己点思考」, 『江南社會學院學報』 2002年 第4卷 第2期(2002年 6月).
- 王蒙, 「全球化浪潮與文化大國建設」, 『光明日報』 2002年 1月 9日.
- 村田忠禧, 「改革開放以來的黨大會政治報告的詞語變化來看中共十六大的特點」, 『中共黨史研究』 2003年 第1期.
- 孫家正, 『牢牢把握中國先進文化的前進方向』, 『求是』 2002年 21期.
- 「文化大國的文化貿易赤子」, 『瞭望』 2006年 第52期.
- 人民日報評論, 「充分認識文化體制改革的重要性緊迫性」 2006年 1月

12日

- 胡錦濤，「高舉中國社會主義偉大旗幟為爭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在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人民日報》2007年10月25日第1版。
- 齊勇鋒，「解讀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的若干意見」，《出版參考》2006年4期(2月上旬刊)
- 王岳川，「大國文化創新與國家文化安全」，《社會科學前線》2008年2期。
- 王岳川，「新世紀文化創新與大國形象確立」，《杭州師範大學學報》2007年6期。
- 王岳川，「大國形象與中國文化輸出」，《花城》2007年5期。
- 李金齊，「全球化進程中我國文化安全的現狀與對策」，《天府新論》2005年第1期(總121期)。
- 李金齊，「文化安全：一個關乎國家存亡的現實問題」，《思想戰線》2006年第1期(Vol 32)。
- 村田忠禧，「改革開放以來的黨大會政治報告的詞語變化來看中共十六大的特點」，《中共黨史研究》2003年第1期。
- 潘國霖，「金秋彩練當空舞-‘華夏文化紐帶工程’全國推廣活動側記」，《中華教育報》2002年10月15日第5版。
- 宋奎波，「大國崛起文化探析及啟示」，《理論界》2007年6期。
- 門洪華，「中國軟實力評估報告」，《國際觀察》2007年第3期。
- 門洪華，「中國軟實力評估報告(上)」，《國際觀察》2000年第2期。
- 閻學通，徐進，「中美軟實力比較」，《現代國際關係》2008年第1期。
- 閻學通，「對中國安全環境的分析與思考」，《世界經濟與政治》2000年第2期。
- 唐慧雲，「國內學術界中國軟實力研究現狀述評」，《國際關係學院學報》2008年第3期。
- 江澤民，「為促進祖國統一大業的完成而繼續鬥爭」，1995年1月30日。
- 彭新良，「論中國的‘文化大國’戰略選擇」，《貴州社會科學》(總207期第3期)，2007年3月。
- 胡惠林，「論文化冷戰與大國文化戰略」，《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2007年3月。
- 洪波，「申遺之爭與文化大國幼稚症」，《今日新息報》2006年10月18日，第6版。

溫朝霞, 「從文化資源大國到文化產業大國」, 『南方日報』 2006年 5月 23日.

中國國務院公報 2006-31, 「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

Daniel Bell, *China's New Confucia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Young Nam Cho and Jong Ho Jeong, "China's Soft power", *Asian Survey*, Vol.XLV III, No.3, May/June 2008.

Zhongying Pang, 'China's Soft Power'(Proceedings), The BrookingOs Institution, October 24, 2207.

Sheng Ding and Robert A. Saunders, "Talking Up China:An Analysis of China's Rising Cultural Power and Global Promotion of the Chinese Language", *EAST ASIA*, Summer 2006, Vol. 23, No.2

⇒ 논문접수일: 2009년 1월 8일

⇒ 게재확정일: 2009년 2월 5일

The China's Cultural Strategy for Building the
Great Cultural China
and Its Influence on Korean Culture

LEE Wook Yo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Culture, Sogang University

China is making efforts to enhance its soft power in recent years. In Beijing Olympic games, China fully presented its fascinating traditional culture to the world. After Beijing Olympic games, Rising Cultural China became a matter of great concern in the world, especially in Korea. This article analyzes discussions and policies for making the Great Cultural China in China, focusing on China's soft power initiative. It posits that cultural policies in China are related with national security concept. This article also posits that China's new cultural strategy is consisted of two categories: overcoming of its weakness in cultural industry and reinventing of its traditional culture. The new strategy for making Great Cultural China might not only influence on the cultural industry of Korea but also evoke cultural conflicts between China and Korea. This article is suggesting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new cultural policies to response China's challenges over cultural industry and cultural export. For example, Korea has to reinvent its image that differentiated from the image of Chinese culture in the world.

Key Words : China's cultural strategy, soft power, Great Cultural China, rising China, cultural policy